

입문의 관점에서 살펴본 『산토끼 릉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릉의 재탄생

유재명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네갈의 교육자 압둘라 사지와 레오폴 세다르 쉥고르의 『산토끼 릉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여 입문의 관점에서 주인공 릉의 재탄생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주인공은 말[言]에서 태어난 이후 여행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이 지식 축적과 정신적 성장은 작품에서 입문 의식처럼 드러난다. 입문 의식은 주인공의 사회화, 사회문화적 가치를 훈련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를 드높이는 의식이자 수단이다.

덤불숲의 동물들, 즉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인공 산토끼 릉을 상징적으로 재탄생시켜 그에게 이러한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고전적 콩트에서 볼 수 없는 동사의 현재형 시제로 기술된다. 이로써 주인공은 이야기가 진전됨에 따라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된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릉은 여행을 통해 덤불숲 밖 세상을 여행하면서 지식을 축적한다. 축적한 지식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의 밑바탕이 된다. 그리고 그는 지식과 행동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깨우친다. 이 깨우침은 주인공 릉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어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토끼 릉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주인공 릉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을 통해 사지와 쉥고르의 창작 의도가 드러난다.

사지와 쉥고르는 아프리카 초등학교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산토끼 릉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집필하였다. 교육적 목적이란 한편으로는 네그리튀드의 한 행위로서 아프리카 문화에 스며있는 아프리카인의 지혜와 지식 전수를,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인이 쓴 작품을 이용해 아프리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교육을 일컫는다.

주제어 : 『산토끼 릉의 아름다운 이야기』, 여행, 입문, 재탄생, 압둘라 사지, 레오폴 세다르 쉥고르

I. 머리말

프랑스의 식민지 시대에 정치 활동에 참여했던 세네갈의 교육자 압둘라예 사지와 레오폴 세다르 생고르는 1953년에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¹⁾』를 공동 저술했다. 1948년, 생고르는 정치적 스승이던 라민 게이예(Lamine Guèye)의 동화주의(assimilationnisme)를 비판하면서 그와 결별한 후 세네갈 민주 블록²⁾을 설립했다. 동화주의란 프랑스와 “답아야 한다는 의무에 거의 맹목적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아프리카인의 존재, 아프리카적 특수성을 완전히 지워버린 자기 추구적 문화 소외”(Bourrel 2009:137)를 일컫는다. 당시에 식민지 시대의 초등 교육에서 “모든 아프리카인의 작품과 문화적 언급을 지우려는 [동화주의 교육자들은] 아프리카의 작품과 콩트”(Bourrel 2009:137-138)를 교육에 도입하고자 한 아프리카주의(africanistes) 교육자들과 갈등했다.

한편 사지는 프랑스인 아프리카주의 교육자 앙드레 다베스(André Davesne)와 친구를 맺으며 초등 교육에 아프리카 작품 및 콩트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인이 쓴 작품이 아닌 “아프리카인 스스로가 썼으며, 콩트이고 교과서이어야 한다는 시각”(Bourrel 2009:138)에서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썼다. 공동 저자인 생고르는 사지의 계획에 공감하여 작품을 공동 집필하면서 프랑스어 표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언어적 오류를 주로 수정하였다.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교육의 관점에서 “흑아프리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교과서”(Bourrel 2021)³⁾로 “네그리튀드의 한 행

1) Senghor Léopold Sédar, Sadi Abdoulaye(2001). 이후 이 글에서 이 작품을 언급할 때, 괄호 안에 약어 LBH와 쪽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2) Bloc démocratique sénégalais(BDS). 레오폴 세다르 생고르가 마마두 디아(Mamadou Dia), 이브라이마 세이두 은다우(Ibrahima Seydou Ndaw)와 SFIO(사회당 -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와 분리하여 1948년 10월 27일에 설립한 세네갈의 옛 정당 이름으로 1958년에 해체되었다.

https://fr.wikipedia.org/wiki/Bloc_d%C3%A9mocratique_s%C3%A9n%C3%A9galais

위”(Bourrel 2009:138)이다. 즉, 아프리카 문화·정치적 운동으로 “아프리카인을 재평가하기 위한 계획”(Joubert 1986:23)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인의 영혼을 존중하면서 추상적인 프랑스어와 더 구체적인 아프리카 언어의 공존을 통해 “한 민족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지식과 지혜인 콩트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달리 말하면] 아프리카의 콩트를 재발견하여 그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아프리카 콩트의 보고에서 착상을 얻어 아프리카 문명의 가치와 다시 연결하여 그 가치를 깊이 있게 재발견하는 작업이다.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일종의 가장자리 거울, 흑아프리카인의 사고와 표현 방식이다. 쟁고르는 이를 ‘인종의 뿌리에 잠기기’라고 부른다.”(Bourrel 2009:138)

네그리튀드의 가치를 선양할 목적을 가진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모순되게도 흑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아프리카 콩트를 이용해 프랑스어를 교육하며 구전 콩트를 서면 문학으로 정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사지의 방대한 문학적 지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지는 라퐁텐La Fontaine의 『우화 Fables』의 「늑대와 개 *le Loup et le chien*」, 키플링Kipling의 『정글북 *Livre de la Jungle*』 등 서구적 소재뿐만 아니라, 격언적 서사나 서아프리카와 사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토끼 이야기⁴⁾와 같은 아프리카의 문

3) “un livre de lecture destiné aux élèves du cours élémentaire d’Afrique Noire”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연구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으로, 초판본(1953년)의 서문에 실려 있다고 한다. 우리가 참고한 판본(2001년)은 초판본의 서문이 삭제된 채 출간되었다.

4) 콜라르텔디아라수바(1975:19)에 따르면 아프리카에는 두 개의 콩트 대연대기, 즉 “산토끼 연대기”, “거미 연대기”가 있다고 한다. 이 연대기에 콜랭은 “영양 연대기”, “거북이 연대기”, “청개구리와 사마귀 연대기”를 추가한다. “산토끼 연대기”는 세네갈, 수단, 니제르, 기니의 비(非)삼림지방, 상(上)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 파소 등지에 퍼져있다. 이 연대기는 차드 및 옛 영국 식민국가였던 동아프리카의 반투(Bantoue)족 국가들까지 전파되었다. “거미 연대기”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의 바이(Vai)족, 상(上)기니의 토마(Toma)족과 게르제(Guerzé)족, 코트디부아르의 모든 삼림지방 등지와 나이지리아 및 니제르의 하우사(Haoussa)족 지방까지 퍼져있다. “영양의 연대기”는 연안 지방의 민족들에게, “거북이 연대기”는 하(下)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의 두알라(Douala)족과 바밀레케(Bamiléké)족까지 퍼져있다.

화적 토대 및 문학적 기교를 작품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이야기 구조는 영웅 산토끼 뱀의 탄생, 반영웅 하이에나 부키의 등장, 산토끼 뱀의 인간 세계로의 여행 등 세 개의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본 글에서 첫 번째 주제인 주인공 뱀의 탄생을 분석하고자 한다. 뱀의 탄생은 흑아프리카 콩트의 공통 분모인 개인을 공동체로 구성하고 통합하기 위해 개인의 파괴적인 충동 대신 공동체 가치의 증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있기 때문이다.(Koffi Kouacou 2021) 이 공동체는 개인적이고 비공동체적인 가치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최우선시한다. 이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험과 그 공유의 필요에 부응하는 일종의 학습 구조인 입문 여정을 통해 표현된다. 입문이란 “교육뿐만 아니라 입문자의 존재론적 위상 변화”(Vierne 1987:7-8), “더 높은 사회적 또는 영적 지위 획득 과정”⁵⁾, 즉 유년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의식화의 통로, 어른 세계로 청소년의 투영, 개인의 사회화, 사회문화적 가치의 훈련과 감수성 증진을 일컫는다. 우리는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상으로 입문의 관점에서 뱀의 재탄생을 다루기 위해, 우선 산토끼 뱀의 신체적 재탄생과 그 의미를 다루며, 그다음으로 미지의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뱀의 여행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뱀의 정신적 재탄생을 다루고자 한다.

아프리카의 반투족 국가들에는 “청개구리와 사마귀 연대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우마루 또한 아프리카 연대기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Colin Roland(2005:109-110) ; Oumarou, C. E.(2008:195-213)

- 5) “L’initiation (du latin : *initiatio*), lors d’un rite de passage est le processus par lequel un novice acquiert un statut social ou spirituel plus élevé par l’acquisition de connaissances ou l’admission aux activités particulières d’une communauté religieuse, d’une société secrète ou d’un groupe.” <https://fr.wikipedia.org/wiki/Initiation>

II. 산토끼 뱀의 신체적 재탄생과 그 의미

사지와 생고르는 “아프리카의 환경”과 “아프리카 어린이의 저변 심리”를 적용하여 프랑스어 교육을 목적으로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을 집필한다.(Singhor 1953 / Corinus 2008) 이들의 집필 목적은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의 구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각색하며 재창조하여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구전 전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인의 심리, 지식, 그리고 직관적 이성을 현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지와 생고르는 “아프리카의 토착 정신과 문화를 학교 커리큘럼에 통합하기 위해 [...] 산토끼 뱀의 연대기”(Corinus 2008)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뱀의 상징적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단계를 그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성장 소설의 형식”(Corinus 2008), 즉 입문 소설 또는 입문 콩트의 형식을 띠며, 이야기는 전통적인 콩트에서 자주 목격되는 ‘옛날옛적에...’와 같은 미특정 과거 시간 표현이 아닌 현재형 동사로 묘사된다. 이로써 주인공 산토끼 뱀은 말[言]에서 태어나 말과 함께 성장한다.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첫 장면은 덤불숲 동물 공동체 구성원들의 “팔라브르palabre”(LBH:3), 곧 회합으로 시작한다. 이 회합은 위계질서를 갖춘 아프리카 전통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덤불숲은 일종의 마을로, 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최소 지역 단위와 정치 조직의 초석으로서의 마을”(Kaputa Lota 2012:84)에 해당하며, 그곳에 최고의 권력자, 최연장자 등 가장 존경받는 존재부터 가장 상스러운 존재 하이에나⁶⁾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⁷⁾ 아프리카의 전통 사회에서 회합은 일반적으로 최연장자가 주

6) “On connaît le plus fort de tous les animaux : c’est Gaïné-le-lion, roi de la brousse. On connaît le plus vieux : c’est *Mame-Gnèye-l’éléphant*. On connaît aussi le plus malhonnête et le moins intelligent : c’est *Bouki-l’hyène*.”(LBH:3)

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목된 권력자가 주재하기도 한다. 『산토끼 뿔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는 최고의 권력자 사자가 이 회의를 주재한다.

덤불숲의 동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의 일을 토론하기 좋은 시기다. / 어느 날 그들은 가장 어린 동물을 뽑기 위해 정자나무 아래에 모인다. 사자 아저씨 가인테가 회의를 주재한다.⁸⁾

덤불숲 공동체의 수장인 사자는 “나무 아래서의 집회 기술”(Kaputa Lota 2012:84)인 회합을 통해 “가장 젊고 [...] 가장 똑똑한”⁹⁾ 존재를 선발할 것임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밝힌다. 이 선발은 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행했던 “합의의 추구로 특징지어지는 민주주의 형태”(Kaputa Lota 2012:84)로 이뤄진다. 회합에서의 결정은 합의로 이뤄진다. 이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피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단합하기 위한 것이다. 갈등이란 이 동물들의 공동체에서 풀지 못한 문제, 즉 가장 어린 동물이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합이란 이 미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 도출 노력을 일컫는다. 이 회합에서 가장 어린 존재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공동체 구성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설하는 짧은 선언의 경합처럼 진행된다. 이 경합에서 참가자 암사슴과 원숭이 그리고 산토끼는 언술을 통해 가장 어린 존재이자 최고의 지성인이 되고자 한다. 경합에 참여한 동물들은 말[言]로부터 새로이 탄생하므로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7) cf. “En fait, [les sociétés négro-africaines de gérontocratiques] sont caractérisées par une interaction harmonieuse entre générations, organisées en classes d’âges selon des règles établies où prévalent la bonne entente et la cordialité.”(Bah 1999:16)

8) C’est au temps où les animaux de la brousse aiment à se réunir pour causer et discuter de leurs affaires. / Certain jour, ils se rassemblent, sous l’arbre des palabres, pour désigner le plus jeune animal. Oncle *Gaïndé-le-lion* préside la séance.(LBH:3)

9) “Si nous connaissons le plus jeune d’entre nous, nous connaissons en même temps le plus intelligent.”(LBH:3)

그런데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뱀이 가장 어린 존재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현실과 상상,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결합할 수 있는 기지, 곧 계략뿐이다. 계략은 강력한 상대를 다루기 위해 연약한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Paulme 1975:569)이므로, 가장 젊음을 증명하고자 경합에 나선 동물 중 가장 연약한 산토끼 뱀이 더 강한 동물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과 상상의 결합은 현실적으로 이미 세상에 태어나 생활하는 존재이지만 상상력을 동원해 언제 태어났는지를 회합에 참여한 동물들에게 설명할 때 짧은 언술로 표현된다. 그 설명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삶의 궤적을 무화(無化)하고 말[言]으로써 탄생을 선언한 시점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점을 삼는다는 점에서 현실과 상상은 또한 진실과 거짓의 결합으로 드러난다. 이 점에서 덩불숲에서 가장 어린 동물의 탄생은 언어적 계략에 해당한다. 동물이 주인인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콩트에서 산토끼가 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듯이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뱀 또한 동일한 태도를 가진다.(Paulme 1975:569)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계략의 형태로는 “거짓말하기”, “가장하기”, “언어로 사태를 전환하기”¹⁰⁾가 있다.

『산토끼 뱀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언어로 사태를 전환하기 위한 지략 싸움은 가장 어린 존재임을 증명하는 언어적 사용 능력으로 결정된다. 암사슴은 자신이 “큰 가뭄이 있던 해, 즉 3년 전”¹¹⁾에 태어났다고 선언한다. 재칼은 “3일 전”¹²⁾에 태어났다고 말하며 암사슴을 경쟁에서 제거한다. 원숭이는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¹³⁾ 태어났

10) “La ruse peut prendre différentes formes dont les plus courantes sont le mensonge, le déguisement et le détournement par la parole.”

<https://www.kartable.fr/ressources/francais/cours/resister-au-plus-fort-ruses-mensonges-et-masques-2/60063>

11) “Moi, je suis née l’année de la grande sécheresse, c’est-à-dire il y a trois ans », déclare la Biche.”(LBH:3-4)

12) “« Moi, je suis né il y a trois lunes », affirme le Chacal [...]”(LBH:4)

13) “« Et moi, dit le Singe en se grattant, tenez, je viens de naître. »”(LBH:4)

다는 말로 자신의 탄생 시기를 말함으로써 회합에 참가한 동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다. 하지만 원숭이는 승자가 되지 못한다. 산토끼 뉘은 “내가 곧 태어날 것이니, 나를 받을 자리를 좀 마련하십시오.”¹⁴⁾ 라고 회합에 참여한 동물들에게 선언한다. 산토끼는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태어남을 언술로 증명함으로써 가장 어린 동물 찾기 시험에서 다른 동물들을 제압하고 승자가 된다. 이 시험을 주재했던 사자는 가장 젊음은 생물학적 혹은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가장 어린 상태를 언어로 증명하는 지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적 나이임을 밝힌다. 이로써 산토끼 뉘은 관목숲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가장 어린 존재이자 가장 현명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사자 아저씨 가인테가 일어나서 산토끼 뉘에게 다가간다. “내가 너를 가장 똑똑한 동물로 선포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너는 우리에게 네가 가장 어리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너는 실제로 가장 어리지 않을 수 있지만 지성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나다.¹⁵⁾

한편 『산토끼 뉘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이 언어적 계략은 앞에서 언급한 저자 사지와 생고르가 의도한 흑아프리카 초등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프랑스어 독서를 위한 책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 가장 젊은이가 되기 위한 경쟁은 프랑스어의 시간 표현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시험에 참여한 동물들은 말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과거의 때를 나타내는 “il y a”, 근접 과거를 나타내는 “venir de + infinitif”, 그리고 근접 미래를 표현하는 “aller + infinitif”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가장 젊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산토끼 뉘은 언어적

14) “« Attention ! Je vais naître. Un peu de place pour me recevoir. »”(LBH:4)

15) “Oncle Gaïndé-le-lion se lève et s’approche de Leuk-le-lièvre : « Je te proclame le plus intelligent des animaux, lui dit-il. Tu as réussi à nous prouver que tu es le plus jeune. Tu n’es peut-être pas vraiment le plus jeune, mais ton intelligence est supérieure à celle des autres. »”(LBH:4)

계약에서 유래하므로 언어적 존재이다. 이 존재는 기존이 상징적 죽음, 즉 언어에 이끌려 무화(無化)된 뒤 다시 태어난다.

뿔은 언어적 유희, 특히 시간 표현으로 가장 현명한 존재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인정받아 재탄생했으나 경험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된다. 이로써 그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로 똑똑함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이 무지는 일반적으로 입문 의식으로 극복된다. “입문 의식은 유년기와 결별하게 하고 동시에 집단생활에서 각 개인을 생활전선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 새로운 역할을 갖는 개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Corcuera Ibáñez 2020:42) 뿔은 공동체 구성원이 그에게 암시적으로 부과한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역할을 갖는 개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문 여행은 뿔이 “성년기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진짜 학교와 같은 고도의 교육적 가치를 지닌 교육의 총체로 여겨진다.”(Corcuera Ibáñez 2020:43)

뿔은 환경을 탐구하며 지식을 축적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의 입문 여행은 “불안과 희망, 불확실성과 깨달음, 의기소침과 흥분”(Corcuera Ibáñez 2020:44)으로 뒤섞여 있다. 삶의 터전을 떠나 외부 세계로 나가는 데에서 기인하는 불안감과 불확실성과 의기소침은 곧 외부 세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관목숲으로 도입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깨달음과 흥분으로 변한다. 뿔은 아프리카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입문 의식을 무사히 마침으로써 지식의 관점에서 우월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뿔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자신의 공동체인 관목숲을 새롭게 바라보며, 지성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발견하고자 한다.

산토끼 뿔은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인지 알아볼 것이다. 그는 덩불숲을 다시 발견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의 눈을 통해 덩불숲을 바라보고 싶어 한다.¹⁶⁾

자신의 현명함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 시선을 공동체 내부에서 외부로 돌린 뿔은 우선 자신의 주거 공간이나 생활 공간인 관목숲을 타인의 시선으로 살펴보며, 다른 동물들의 조언을 통해 앎을 축적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관목숲에서 다람쥐 오디옥Hodiok-l'écureuil과 거미 디아르고뉴Diargogne-l'araignée와의 만남에서 자신이 가장 현명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는 다람쥐가 마호가니 나무 위에서 자신을 옥보임에도 나무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법을 찾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데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자각한다. 이 무지와 무능에서 뿔은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복수심을 갖는다. 이때 두려움은 신음과 회피 - “gémir(신음하다)”, “s'enfuir(달아나다)”(LBH:6) - 로 표현되고, 복수심 - “Je me vengerai un jour.(언젠가 복수할 거야.)”(LBH:6) - 은 미래에 대한 기약으로 표현된다.

무지와 무능을 일깨운 다람쥐와의 만남 이후 뿔은 다른 동물 거미를 만난다. 뿔은 거미의 박식함에서 덤불숲 밖에서 조심해야 할 존재인 인간의 속성을 배운다. 거미는 그에게 “직립 이족 보행(直立二足步行)하는 위험한 동물[인 인간의] 천진난만한 모습”¹⁷⁾, 즉 인간의 위선적인 모습과 도모에 감사할 줄 모르는 무례함과 배은망덕¹⁸⁾을 환기하면서 인간을 경계할 것을 조언한다. 그리고 거미는 인간보다 선량하지도 않고 인간만큼이나 몰상식하면서 인간보다 더욱 사나운 동물들을 열거하면서 뿔의 무지를 일깨운다. 특히 그는 뿔에게 “코끼리의 육중한 다리, 사자의 위험한 턱, 표범과 레오파드의 강력하고 날카로운 발톱”¹⁹⁾을 조심

16) “Leuk-le-lièvre va voir s'il est vraiment le plus intelligent des animaux. Il veut découvrir de nouveau la brousse, la regarder maintenant avec les yeux de quelqu'un qui sait beaucoup de choses.”(LBH:5)

17) “Ainsi, continue Diargogne-l'araignée, tu feras la connaissance de l'Homme. C'est un animal dangereux, qui se tient droit comme un filao et qui se déplace sur deux pattes seulement. Méfie-toi surtout de son air bon enfant.”(LBH:8)

18) “Je l'aidais à se débarrasser des nombreuses mouches qui souillaient ses aliments, aggravait ses plaies, agaçaient son sommeil. Mais l'ingrat ne m'a marqué aucune reconnaissance.”(LBH:8)

시킨다. 거미의 충고는 기존의 권력 질서를 부정하는 언술이며, 권력자들의 위선과 무례함, 도처에서 노리고 있는 생명 위협에 대한 경고이다. 이 경고에 대해 뱀은 거미에게 덤불숲의 상시적인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과신한다.

나는 조심하라는 당신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 니트, 코끼리 마메-그네예, 사자 아저씨 가인테로부터, 어떤 동물의 이빨과 다른 동물의 발톱으로부터 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영리하답니다.²⁰⁾

뱀은 덤불숲에서 한편으로는 타인의 충고를 취사선택하여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면서 지식 축적의 장을 삼림으로 넓힌다. 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입문의 장소로서 “숲과 삼림은 종교적 의미를 얻는다.”(Corcuera Ibáñez 2020:36) 여기에서 종교는 입문자들이 세속을 멀리한다는 관점에서 일상 사회로부터의 격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덤불숲에서 삼림으로의 공간 이동은 미지의 세계에 관해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이 된다. 지적 갈증을 풀기 위해 뱀은 자신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덤불숲 속의 타인, 즉 다람쥐와 거미에게 배운다. 특히 후자와의 만남에서 뱀은 “위험으로부터 제때 벗어날 줄 아는 방법”²¹⁾, 곧 계약의 쓸모에 대해 깨우친다. 거미에 따르면

19) “Je te conseillerai aussi de l’être à l’égard de certains animaux qui ne sont pas meilleurs que l’Homme. Ces animaux sont aussi ingrats et plus féroces que lui. Tu te méfieras du lourd pied de Gnèye-l’éléphant, de la patte et de la mâchoire redoutables d’Oncle Gaïndé-le-lion, des griffes puissantes et acérées de Sèguele-léopard et de Téné-la-panthère.”(LBH:8-9)

20) “Je n’ai pas besoin de tes conseils de prudence. Je suis assez grand et assez intelligent pour me défendre quand il le faudra contre Nit-l’homme, Mame-Gnèye-l’éléphant, Oncle Gaïndé-le-lion, contre la dent des uns et la griffe des autres.”(LBH:9)

계락은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지만 심각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할 수도 있다.”²²⁾ 획은 이 양가성을 갖는 계락을 펼치기 위해 관목숲을 벗어나 삼림을 여행한다.

III. 미지의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획의 여행

『산토끼 획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언어유희에서 새로 태어난 산토끼 획은 생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로서 무지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이 필요는 입문을 통해 충족된다. 무책임한 태도, 무질서와 무지를 극복하는 입문 장소인 숲에서 획은 “용기를 자극하기 위해 신경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술책을 쓸 줄 알아야 하며, 관찰과 기억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힘든 일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캄캄한 장소를 가로지를 줄 알아야”(Corcuera Ibáñez 2020:44) 한다. 관목숲 탐구 여행 이후 삼림으로의 여행을 통해 그는 자신의 “상태를 초월하여 이전의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도달”(cf. Vieme 1987:66)²³⁾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험의 공간이자 미지의 세계인 삼림으로 들어가기 전에 획은 주저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경계하며 기억을 더듬는다. 그는 맹수와 인간을 조심하라는 거미의 경고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삼림을 경계하며 머뭇거리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세계로 잠입하여 말[言]의 영역으로만 존재했던 추체험을 실제 경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다.

21) “il faut connaître ces dangers pour pouvoir les écarter à temps.”(LBH:7)

22) “« Tes ruses te feront avoir beaucoup d’histoires. Sans doute tu sauras toujours te tirer d’affaire, mais tu rencontreras parfois de sérieuses difficultés. »”(LBH:7)

23) “[...] il est bon de rappeler [...] le but de l’initiation : permettre à un homme de transcender son état, d’accéder à un statut radicalement différent de celui qui était auparavant le sien [...]”

그는 숲 가장자리에 도착한다. 그리고 거기서 나무들이 갑자기 키가 커지고 더 넓고 더 가까워진다. 우선 뿔은 숲의 가장자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망설인다. 왜냐하면, 거미 디아르고뉴의 조언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생각해 본다. 그는 숨어 있는 적에게 놀라지 않기 위해 고개를 좌우로 돌려 살피며 올려다보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마침내 숲으로 들어간다./ 뿔은 자신이 지금 동물의 제왕들, 즉 야수들이 살고 있는 영역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²⁴⁾

뿔은 야수들의 영역에서 야수들은 만나지 못한 채 거북이 음보나트 M'Bonate-la-tortue를 만난다. 이 만남에서 뿔은 조심성 많은 거북이 덕분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그리고 그는 거북이의 조언에 따라 바다를 향해 간다. 뿔에게 바다는 상상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 공간은 뿔에게 “많은 동물이 바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으나 아주 소수의 동물만 그것을 보았”²⁵⁾으므로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덤불 숲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정보로 자신의 지식을 증명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 그는 제비 음벨라르 M'Bélar-l'hirondelle에게서 삼림에서 “물의 왕국”²⁶⁾에 도착하기 위한 방향 설정 방법에 관한 지식을 깨친다. 그는 태양은 동서 방향 설정의 좌표가 되어야 하며, 태양이 부재할 때 바람의 방향은 방향 설정의 기준이 된다는 진리를 배운다. 그리

24) “Il arrive ainsi à la lisière de la forêt. Là, brusquement, les arbres deviennent plus hauts, plus larges et plus serrés. Leuk hésite d'abord avant de franchir la lisière de la forêt. Car, maintenant, les conseils de Diargogne-l'araignée lui reviennent à la mémoire. Il se demande ce qui va lui arriver. Il pénètre enfin dans la forêt, se déplaçant avec précaution, levant les yeux à chaque instant, tournant la tête à droite et à gauche pour ne pas être surpris par un ennemi caché./ Leuk sait qu'il se trouve à présent dans le domaine où vivent les seigneurs de l'espèce animale: les fauves.”(LBH:10)

25) “Beaucoup d'animaux ont entendu parler de la mer. Mais bien peu l'ont vue.”(LBH:12)

26) “le royaume des eaux”(LBH:12)

고 그는 습득한 지식을 사용해 바다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았음을 지형 열거로 대신한다. 그가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 거쳤던 다양한 지형, 즉 “사바나, 삼림, 숲속의 빈터, 평야, 동산, 협곡”(LBH:13) 등은 아프리카 전통에서 입문 의식을 행하는 곳으로 자주 선택되기 때문이다.

릭의 바다에 대한 첫인상은 놀라움이다. 그는 바다를 “길을 막고 포효하는 것”, “하늘과 맞닿은 육지의 끝, 지평선과 혼동되는 곳”, “거대한 액체 사막 덩어리의 움직임”(LBH:13), “광막함”, “혈떡거리며 숨 쉬며 사는 듯한”²⁷⁾ 존재, 곧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생물체처럼, 신성한 존재처럼 인식한다. 그는 이 신성한 체험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추체험할 수 있도록 물의 왕국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흔적들을 수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개껍데기는 그가 타인들에게 자신의 우월한 지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입문 여정에서 겪은 시련의 증표가 된다. 이때 말[言]으로써만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예컨대 바닷물의 짠맛은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으므로 배제한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는 자신이 바다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자루에 담아 조상의 땅을 향해 다시 출발했다. / “그들은 놀랄 거야.” 그는 자랑스럽게 혼잣말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야!²⁸⁾

27) “cette chose mugissante qui a l’air de lui barrer la route. [...] Bientôt la terre finit. Une étendue plate et bleue la remplace. Cette étendue se confond, à l’horizon, avec le bleu du ciel.” / “Il plonge son regard dans l’immensité qui, devant lui, fuit de toutes parts. Toute la masse de ce grand désert liquide bouge. La mer semble vivre et respirer par saccades.”(LBH:14)

28) “Et, sans plus tarder, il repart pour le pays de ses ancêtres, emportant, dans sa hotte, le plus grand nombre de témoignages, pour prouver qu’il a vu la mer. / « Ils seront étonnés, se dit-il avec fierté. Et ils me croiront plus intelligent encore que je ne suis ! »”(LBH:14)

바다 여행 이후 뿔이 지식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감행한 인간 세계로의 여행은 “인간을 알고자 하는 큰 욕망”²⁹⁾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눈에 비친 인간Nit-l’homme 세계는 “노출된 장소에서 관목숲과 삼림 그리고 야생동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주지, “올타리가 쳐진 거대한 밭”, “오솔길과 오솔길 위의 발자국”³⁰⁾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이 세계를 관찰하며 “인간은 위험한 동물”³¹⁾로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한 거미의 말을 회상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목동을 발견하고 관찰하며 거미의 말을 검증한다. 달리 말하면 뿔은 말[言]의 세계를 현실에서 관찰하여 징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린다. 그는 비가시계(소리-감각)로 관념의 세계(말)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 동물[인간]은 목소리만으로 자신보다 큰 짐승을 지휘하므로 매우 위험한 존재임에 틀림없다.³²⁾

뿔은 인간 세계를 위협적인 소리, 분주한 움직임으로 인식한다. 그는 우글거림, 소리가 난무하는 공간, 지옥과 같은 공간에서 자신을 구해야 한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보인 비우호적인 반응으로 인해 가끔 동물 또한 “목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동물”³³⁾이라고 인식하며 그들과 거리를 둔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어른들의 호전적인 태도와는 달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을 만나 혼란에 빠진다. 산토끼에 대해 관목숲의 “동물 중 가장 피바르”³⁴⁾므로 조심해야 하며 인간에게 심술을

29) “[...] son grand désir est de connaître l’Homme.”(LBH:15)

30) “Ce dernier habite loin des animaux, hors de la brousse et de la forêt, en des endroits découverts.”(LBH:15)

31) “un animal dangereux”(LBH:15)

32) “Cet animal[l’Homme] doit être très dangereux, puisque, de sa simple voix, il commande à des bêtes plus grosses que lui.”(LBH:16)

33) “certainement dangereux comme son maître”(LBH:16)

부릴 수 있다는 어른의 말과 아이들의 호감이 대비되는 상황에서 획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친구”³⁵⁾의 의미를, 어른에게 단지 먹을거리의 의미를 지닌다.³⁶⁾ 이 양가적 의미의 충돌에서 어른에게 포획되어 공간에 갇힌 획은 아이들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탈피는 산토끼 신체의 변형 이유가 된다. 입문의 관점에서 이 신체적 변형은 산토끼 획이 새로운 정체성, 즉 “새로운 사회적 지위와의 일체성”(Corcuera Ibáñez 2020:43)을 갖는 계기가 된다. 산토끼의 긴 귀와 짧은 꼬리는 인간과의 접촉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이 네 몸에 입힌 피해, 즉 길쭉한 귀와 잘린 꼬리, 변형된 뒷다리를 보고 있다.³⁷⁾

획이 인간(어른)에게 포획되어 감금된 후 인간(아이)의 도움으로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은 그가 인간의 이중성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갇힘과 탈출의 과정에서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재탄생을 의미한다. 이로써 획은 인간 세계를 여행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지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적 변형을 겪는다. 이 상징적인 지적 성장과 신체적 재탄생은 정신적 재탄생을 위한 여행의 밑거름이 된다. 그는 진정한 지성인, 곧 『산토끼 획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초입부에서 얻은 최고의 지혜를 지닌 인물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여행을 떠난다.

34) “vous avez affaire là au plus ruse des animaux de la brousse.”(LBH:19)

35) “un nouvel ami”(LBH:19)

36) “Le voilà prisonnier de l’Homme, qui va peut-être le rôtir et le manger.”(LBH:20)

37) “C’est l’Homme qui t’a causé les maux que je vois sur ton corps : oreilles allongées, queue coupée, pattes de derrière déformées.”(LBH:21)

IV. 뿔의 정신적 재탄생

『산토끼 뿔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인간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온 뿔은 변형된 신체를 치료하기 위해 요정Mame-Randatou을 찾아가는다. 이 요정은 “동물 세계와 인간 세계에 두루 잘 알려진”³⁸⁾ 치료사로 “모든 신체 기관의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으며, 최악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³⁹⁾을 뿐만 아니라, 변모에 능숙한 신비한 인물,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초월적 존재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뿔은 요정과의 만남에서 변형된 신체를 정신 고양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입문의 관점에서 이는 “하나의 존재 양식을 넘어 탁월한 다른 존재 양식에 이르는 것, [달리 말하면] 정신적 변모”(Eliade 1985b:256)를 위한 욕망을 의미하며, “신성 인식과 지혜를 입문의 결과로써 이해하”(Eliade 1985a:168)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뿔은 덤불숲 동물들이 신체가 변형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이용해 공동체 동물들을 더 잘 속일 수 있다고 인식한다.⁴⁰⁾ 이 인식은 요정과의 만남에서 변형된 신체를 이점으로 극대화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 이점은 우등 비교로 표현된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며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⁴¹⁾ 즉, 뿔이 빠른 상황 판단 능력, 신속한 위험 회피 능력, 공간 이동을 위한 진보된 도약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 뿔은 이 능력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38) “Tout le monde, au royaume des animaux comme au pays des hommes, connaît la renommée de Mame-Randatou.”(LBH:21)

39) “On dit que, d’une simple caresse de sa main, elle peut changer la forme de n’importe quel organe, guérir les maladies les plus graves.”(LBH:21)

40) “Puisqu’ils ne me reconnaissent pas, je pourrai mieux les tromper.”(LBH:23)

41) “Si tu gardes tes longues oreilles, tu entendas mieux ; si tu gardes tes longues pattes, tu courras mieux ; et ta queue écourtée te permettra de mieux sauter.”(LBH:22)

위해서 마메랑다투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요정의 요구는 일종의 공여로 신성한 힘과의 결합을 위해 필요하다.(Corcuera Ibáñez 2020:40) 신성한 힘과의 결합이란 요정의 치료로 변형된 신체가 그대로 영원히 유지됨을 말한다. 이 관점에서 공여 물품으로서 “코끼리와 고래의 젖, 사자의 이빨과 표범의 발톱”⁴²⁾은 뉘이 요정을 정신적 지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공여 물품을 획득하기 위한 그의 여행은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여행, 즉 잠재적인 신성과의 일체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행이다. 그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여행을 위해 우선 대상 동물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요정 마메 랑다투와 약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기 전에, 그는 먼저 각 동물과 관련된 성격을 알고자 한다. / 그는 오랜 조사를 하여 동물들을 하나씩 완벽하게 알아간다.⁴³⁾

뉘는 각 동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식으로 축적한다. 그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각 동물의 성격, 생활 습성, 행동 양식을 자신의 관점으로 정의하여 이해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코끼리는 체구는 거대하나 살생을 즐기지 않으며 부드럽고 온순하며, 사자는 무시무시한 발과 강력한 주둥이를 가졌으나 배고프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아침을 좋아하고, 표범은 동물 중 가장 사납고 아주 교활하며, 고래는 물고기만 잡아먹으므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LBH:23-24) 뉘는 이외 다른 동물들의 특성도 파악하지만, 자신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동물들, 예컨대 암사슴, 재갈, 기린, 원숭

42) “Il me faut un peu de lait d’éléphant, un peu de lait de baleine, une dent de lion et une griffe de panthère.”(LBH:22)

43) “Avant de chercher comment faire pour trouver les choses promises à Mame-Randatou, la fée, il veut connaître d’abord le caractère de chacun des animaux auxquels il va avoir affaire. / Il fait une longue enquête et réussit à les connaître parfaitement, l’un après l’autre.”(LBH:23)

이, 멧돼지, 하이에나에게는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⁴⁴⁾ 그는 과학적 방법(자료의 수집, 분류, 분석)으로 동물들의 속성을 파악하여 지식으로 축적하고 그 지식을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산토끼 뿔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뿔은 요정에게 바칠 공물을 얻기 위해 코끼리, 고래, 사자, 그리고 표범에게 똑같은 형식의 전략을 펼친다. 그의 전략은 특별한 행동 양태로 표출된다. 달리 말하면 그의 전략은 계획적이고 행동적이며 조작적이다.(cf. Laurent 2020:9) 그는 최상급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호칭하며 성품을 극찬하기, 상대방에게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기, 이유를 설명할 때 계략을 사용하기, 얻고자 한 것을 얻은 뒤 도망가기를 순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형식에서 뿔의 계략은 지성적 표현이 된다. “[계략가의] 활동은 계략, 각자가 원하는 실제적인 지성의 표시, 권력과 확실한 권위의 한 형태에 관한 증거로 인식될 것”(Le Quellec Cottier 2008)이기 때문이며, 또한 “다름에서 이타성, 즉 타인에 대한 지식을 다루기”(Laurent 2004:177 / Le Quellec Cottier 2008) 때문이다.

뿔은 코끼리에게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하[고]”, 고래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코끼리에게 “동물 중 가장 인자하시[다]” 칭송할 뿐 아니라, 고래에게는 “모든 바다의 왕비”⁴⁵⁾라 치켜세우며 상대방에게 최상의 예를 갖추어 성품을 찬양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해제한다. 그리고 나서 뿔은 이들에게 제공할 선물을 가져왔으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도움을 청한다는 핑계를 구실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 계략가가 “행동 양식과 존재 양식”⁴⁶⁾으로써 가장 흔히 사용하는 수

44) “Les autres animaux n’intéressent pas Leuk. Il sait que toujours et partout il pourra tromper M’Bill-la-biche, étourdie et craintive ; Till-le-chacal, voleur et bavard ; N’Diamala-la-girafe, naïve et bonasse ; Golo-le-singe, malin mais capricieux ; M’Bam-Ala-le-phacochère, têtu et borné ; enfin Bouki-l’hyène, méchant mais inintelligent.(LBH:24)

45) “respectueusement en se prosternant à terre”, “s’inclinant profondément”, “le plus généreux des animaux”, “reine de toutes les mers”(LBH:25)

법이다. “거짓말은 현실 가장, 진실 왜곡에 근거하기”⁴⁷⁾ 때문이다. 뱀은 찬양과 거짓말, 곧 말의 향연과 꼬끼리와 고래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우유를 얻는다.(LBH:26) 뱀이 꼬끼리와 고래를 지략의 희생물로 만든 데에는, 그가 이들의 대상으로 현실을 가장하거나 진실을 왜곡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며 상황을 잘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산토끼 뱀의 기만행위에 농락당한 꼬끼리와 고래는 그에게 복수를 계획한다. 이 계획에 뱀은 또 다른 계략, 즉 변장으로 대응한다. “변장은 또 다른 계략이다. 계략가는 변장하고, 그렇게 하여 피해자를 속인다.”⁴⁸⁾ 뱀은 염소 가죽을 이용해 변장하여 그들을 속이고 양식을 해결하므로, 꼬끼리가 자신의 생활 영토에서 먹을거리를 찾아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과 고래가 자신의 생활 영토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된다. 이로써 산토끼의 계략으로 꼬끼리와 고래의 복수는 무위로 끝난다.

또한, 뱀은 돌려 말하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서 얻어낸다. 악의에 기반한 그의 호소는 언어 구사 능력, 지성, 조작술에 의존한다. 뱀은 사자와 표범을 제압하기 위해 직설 화법을 피해 에둘러 전염병을 언급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집는다. 이 상황 반전에서 뱀은 자신의 언술을 마법사의 말로 날조하여 사자에게 전

46) “La ruse [...] apparaît comme un mode d’action et un mode d’être. Elle est identifiable et annoncée d’avance par des personnages qui, arborant des parures composites, usées et abimées, agissent de façon maladroite ou non-réglementaire, manipulent l’inversion et s’évertuent à tromper les gens à travers un espace fictionnel.”(Laurent 2020:12)

47) “Le mensonge repose sur un travestissement de la réalité, un détournement de la vérité.”
<https://www.kartable.fr/ressources/francais/cours/resister-au-plus-fort-ruses-mensonges-et-masques-2/60063>

48) “Le déguisement est une autre ruse : le personnage rusé se déguise et trompe ainsi sa victime.”
<https://www.kartable.fr/ressources/francais/cours/resister-au-plus-fort-ruses-mensonges-et-masques-2/60063>

한다. 그의 언어 조작은 전염병의 유해성과 그것을 막기 위해 사자 이빨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뿔은 말한다. 이 나라에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전염병은 동양에서 온 한 마법사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숲의 어른들에게 제가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⁴⁹⁾

뿔은 지략을 통해 얻은 결과물(코끼리와 고래의 젖)을 다른 지략(사자 이빨을 획득할 목적)을 펼칠 재료로 사용한다. 허구를 사실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한 뿔의 증거 제시로 인해 곧 도래할 유행병은 사자에게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진다. 덤불숲의 맹주 사자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지도자의 책무로,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의 발로로 이빨을 뿔에게 제공한다.

사자는 말한다.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덜 관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 마법사가 원하는 내 이빨이 어떤 것이냐? / - 아무 이빨이나 요, 폐하. / - 마침 오래전부터 한 이빨이 나를 아프게 한다. 그 이빨을 빼려고 대장장이를 부르려 했어!” /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 뿔은 사자 삼촌가인테의 큰 어금니를 가져간다.⁵⁰⁾

49) “Un grand malheur va tomber sur le pays, dit Leuk. La plus terrible des épidémies est signalée par un marabout venant de l’Orient. “Cette épidémie, a-t-il dit, fera mourir tous les êtres vivants si on ne fait rien pour l’éloigner. Je demande aux grands de la brousse d’offrir ce qui est nécessaire pour me permettre de l’arrêter.””(LBH:29)

50) “« Je ne serai pas moins généreux que les autres, dit-il. Quelle est celle de mes dents que veut le marabout ? / - N’importe laquelle, Sire. / - Eh bien, justement une dent me fait mal depuis longtemps. Qu’on fasse venir un forgeron pour qu’il l’enlève ! » / Ainsi dit, ainsi fait. / Leuk emporte une grosse molaire d’Oncle Gaïndé-le-lion.”(LBH:29)

『산토끼 뿔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열넷째 이야기 「뿔과 표범 세그 Leuk et Sègue-le-léopard」에서 뿔은 코끼리와 고래 그리고 사자에게 사용했던 계략, 곧 거짓말하기, 돌려 말하기, 변장하기로는 표범의 발톱을 획득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그는 이 난관을 돌파할 묘안을 짜내기 위해 며칠을 숙고하며 선불리 행동하지 못한다. 그는 숙고와 주저 끝에 야수의 성격과 행동거지, 즉 표범의 고지식함 혹은 순진함과 난폭함을 역이용하기로 한다.

뿔이 레오파드 세그에게 코끼리, 고래, 그리고 사자에게 했던 똑같은 책략을 펼치기는 불가능하다. 뿔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며 망설이고 있다. 표범 세그의 발톱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 뿔은 마침내 레오파드 세그를 자극하러 가리라 하고 결심을 굳힌다. 뿔은 세그가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 그에게 드리운 함정에 빠지곤 한다고 생각한다.⁵¹⁾

신체적 물리적으로 열세인 산토끼 뿔이 표범 세그의 발톱을 얻기 위해 세운 계략의 서사 구조는 다음과 같다. 낮잠 자는 표범(최초 상황-계략가의 계략 대상 특정하기), 표범을 놀래 자극하여 발톱을 내민 채 돌진하게 하기(최초의 상황을 교란하기-계략가가 계략의 대상을 교란하기), 돌진 속도를 못 이겨 무화과나무에 표범의 발톱을 박히게 하기(사건의 반전-계략의 대상을 궁지에 몰아넣기), 다른 무화과나무 뒤에 숨기(교란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계략가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궁지에 빠진 표범을 피해 피신한 후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오기(교란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계략가가 계략의 대상을 제압하

51) “Il est impossible à Leuk de jouer, à Sègue-le-léopard, les mêmes tours qu’à l’Éléphant, à la Baleine et à Oncle Gaïndé-le-lion. Leuk le sait bien ; et c’est pourquoi, depuis quelques jours, il réfléchit, hésite. / Avoir la griffe de Sègue-le-léopard, ce n’est pas une petite affaire ! / Leuk finit par se décider : il ira provoquer Sègue-le-léopard. Il pense que ce dernier, quand il est en colère, perd la tête et tombe souvent dans les pièges qu’on lui tend.”(LBH:31)

기), 표범의 발톱을 회수하기(상황 종료-계략가의 목적 달성).(LBH:32) 이 구조는 뱀이 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지식과 그 지식을 지혜롭게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입문 여행에서 뱀이 신체적, 물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얻은 우유와 이빨과 발톱은 상대의 “정치력과 위신을 상징하는 재화들”(Kaputa Lota 2012:84)이다. 이 정치력과 위신은 뱀이 입문 여행에서 얻은 공물을 요정에게 바친 후 후자와 대모-대자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뱀에게 상징적으로 이전된다. 이는 그가 초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요정의 보호를 받음을 의미하며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르치아 엘리아데에 따르면 이 보호는 입문을 통해서 깨닫는 “신성과 죽음과 성(性)에 관한 깨달음”(Eliade 1985a:159-160)에 해당한다. 요정은 크고 작은 사건과 백안시(白眼視)나 험담으로부터 뱀을 정신적, 물리적으로 수호하리라고 뱀에게 천명하며 신성과 죽음을 깨우치고, 아들로 호칭하며 성을 깨우치기 때문이다.

너는 에이스다, 내 아들. 나는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이제 네 가치를 알았다. 이제부터 나는 네 대모가 되고 너는 내 대자가 될 것이다. 나는 크고 작은 일들, 사악한 눈과 사악한 혀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⁵²⁾

뱀과 요정의 결합, 즉 세속의 힘과 신성한 힘의 결합은 그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요정의 보호”⁵³⁾ 덕분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확신은 요정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문(“마메랑다투, 빛 중의 빛, 어서 나를 구하러 오소서!”⁵⁴⁾)을

52) “Tu es un as, mon petit. J’ai voulu voir ce dont tu étais capable. Maintenant, je sais ce que tu vau. Désormais, je serai ta marraine et tu seras mon filleul. Je te protégerai contre les grands et les petits, contre le mauvais œil et la mauvaise langue.(LBH:33)

53) “Oui, il peut compter sur la protection de la fée.”(LBH:34)

그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질적 행동 규칙으로, 그리고 요정이 뿔의 이마에 광범위한 지식의 표시를 해줌으로써 정신적 재탄생으로 구체화된다.

“나의 보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네가 지혜롭고 꾀바르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네 지식을 드높여 주고 싶다. 가까이 와서 이마를 내밀어라.”하고 요정은 말을 덧붙인다. / 뿔은 마메랑다투에 순종하고 그녀는 검지 끝을 뿔의 이마에 올려놓는다. 그녀가 이마에서 손가락을 떼자 뿔의 이마 한가운데에 매우 광범위한 지식의 표시인 흰색 별이 표시되어 있었다.⁵⁵⁾

지혜롭고 꾀바른 존재에서 광범위한 지식의 소유자로서의 재탄생은 뿔에게 “외재성으로부터 내재성으로의 점진적 이동을 통해 개인의 변화 [...]에 대한 믿음을 겨냥하면서 [...] 꾀내기를 사회 공동체 생활로 편입하고 [그에게] 성인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orcuera Ibáñez 2020:41)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요정을 자신의 영원한 수호자로 얻는다는 것은 뿔이 요정의 보살핌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능력과 권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뿔은 입문 의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체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벗어나 성인의 상태로 재탄생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가 덤불숲을 떠나 타지에서 여러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지성과 행동과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독립된 개체로 재탄생한다. 그리고 요정의 뿔에 대한 신뢰는 덤불숲에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했음을 알린다. 따라서 뿔은 재탄생의 과정에서 덤불숲의 사회적 위계를 이해하고 극복하여

54) “Mame-Randatou, lumière des lumières, viens vite à mon secours !”(LBH:34)

55) “« Mais, ajoute la fée, ma récompense ne doit pas s’arrêter là. Je sais que tu es intelligent et rusé. Je veux toutefois augmenter ton savoir. Approche et avance ton front. » / Leuk obéit et Mame-Randatou y pose le bout de son index. Quand elle enlève son doigt, le front de Leuk est marqué, en son milieu, d’une étoile blanche, signe d’un savoir très étendu.”(LBH:34)

자신의 위계를 찾음으로써 자신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많은 동물이 있는 덤불숲으로 돌아가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재탄생, 즉 정신적 성숙은 덤불숲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그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덤불숲의 어른들이 그에게 복수하려 애쓸 것임을 안다. 그들과 싸워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과 싸워 끝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 뿔은 적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⁵⁶⁾

V. 맺음말

콩트는 현재 아프리카 사회에서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토끼 뿔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과거를 증명하는 무형자산으로서 구전 콩트의 문자화 작업은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전하면서 계승하는 일이다. 네그리튀드 운동의 일환인 이 작업은 또한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도구로써 유용할 뿐 아니라 아프리카 공동체의 가치와 지혜를 전수하고 교육하는 도구로써 유용하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산토끼 뿔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공동체 가치와 지혜 전수는 입문으로 표현된다. 산토끼 뿔은 작품의 초입에 상징적으로 탄생한 이후, 덤불숲, 삼림, 바다 등으로 여행하면서 자연환경을 탐구하여, 그 결과를 행동 양식으로 축적하고 그 행동 양식으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증표로 사용한다. 그의 지적, 육체적, 정신적 성장 추이는 이야기가 진전됨

56) “Mais il sait que les grands de la brousse ne manqueront pas de chercher à se venger de lui. A quoi bon lutter avec eux ? A quoi bon se créer des histoires à n'en plus finir? / Leuk pense qu'il vaut mieux s'éloigner de ses ennemis.” (LBH:34)

에 따라, 즉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 성장하는 존재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획은 축적한 지식을 실제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덤불숲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규칙을 습득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 입문 과정에서 획은 지성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입문을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인간을 성장시키는 지혜로 표출된다면 그 입문은 성공적으로 끝날 것임을 깨우친다.(cf. Corinus 2005:28)

그런데 “초심자[로서 획]은 자신이 홀로 입문 과정을 이끌지 못한다.”(Vierne 1987:56) 그 과정은 상징적인 새 탄생과 최고의 지성은 같다는 사자의 선언, 즉 특별한 사명으로 시작된다. 『산토끼 획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획의 사명은 지적, 육체적, 정신적 성장의 의미를 띤다. 이 성장은 일련의 여행과 그 속에서 겪는 시련으로 그려진다. 시련은 삼림, 바다, 인간 세계에 관한 이해와, 그 이해를 타인에게 증명할 수 있는 지적 성장과 이 성장을 구체화할 수 있는 행동 양식, 즉 모험으로 표현된다. 획의 모험은 우선 “지식의 양태로서 직관적 이성”(Senghor 1983), 즉 지식의 올바른 사용법 배우기에 해당한다. 그의 직관은 앎의 시작이자 끝으로 직접 경험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획과 요정의 만남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획의 “모험은 실제적이다”(Senghor 1983). 계략과 지혜와 정신력은 주인공이 시련에 놓일 때, 그 상황을 벗어나는 데 적합한 행동 양식이다. 하지만 이 행동 양식은 모험을 통해 체화되고 실제화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로써 이 행동 양식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하나의 행동 규범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인공 획의 모험은 이야기 속 인물의 사건이 아니라 집단의 사건으로 통합되어 공동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적,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위한 획의 입문 여행은 자신의 상태를 뛰어넘는 존재의 쇄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아프리카인의 직관적 믿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Senghor, Léopold Sédar, Sadj, Abdoulaye(2001), *La Belle Histoire de Leuk-le-lièvre*, Dakar: Nouvelles Éditions Africaines.
- Bah, Thierno(1999), “Les Fondements endogènes d'une culture de la paix en Afrique : mécanismes traditionnels de prévention et de résolution des conflits”, *UNESDOC*, Unesco: Digital Library, 1-26.
- Bourrel, Jean-René(2009), “*Leuk-le-Lièvre, un acte de négritude*”, *Présence Africaine*, 1^o et 2^o semestre 2009, Nouvelle série, n^o. 179/180, 137-140.
- Bourrel, Jean-René(2021), ““*La Belle Histoire de Leuk-le-lièvre*”, de Léopold Sédar Senghor et Abdoulaye Sadj”, *L'école des lettres - Revue pédagogique, littéraire et culturelle*, septembre 2021. <https://www.ecoledeslettres.fr/la-belle-histoire-de-leuk-le-lievre-de-leopold-sedar-senghor-et-abdoulaye-sadj/> (검색일: 2024.10.14.)
- Colardelle-Diarrassouba, Marcelle(1975). *Le lièvre et l'araignée dans les contes de l'ouest africain*, Paris: Bordas, UGE.
- Colin, Roland.(2005). *Les Contes noirs de l'Ouest africain : Témoins majeurs d'un humanisme*, Paris: Présence africain.
- Corcuera Ibáñez, Mario, 이경래 외 옮김(2020), 『흑아프리카의 전통과 구술문학 - 말과 현실』, 아딘크라.
- Corinus, Véronique(2005), “*La belle histoire de Leuk le lièvre* ou « le détournement d'un roman scolaire »”, *Études littéraires africaines*, (20), 25-30. <https://doi.org/10.7202/1041346ar> (검색일: 2024.05.22.)
- Corinus, Véronique(2008), “Senghor et Sadj pédagogues : l'oralité africaine au service de l'écrit français”, *Littératures, savoirs et enseignement* (sous la direction de Musanji Ngllasso-Mwatha),

- Presses Universitaires de Bordeaux, coll. Études africaines et créoles, 327-335. Publication sur OpenEdition Books, 2021. <https://books.openedition.org/pub/43177> (검색일: 2024.06.18.)
- Eliade, Mircea(1985a), *Le Sacré et le profane*, Paris: Idées / Gallimard.
- Eliade, Mircea(1985b), *Mythes, rêves et mystères*, Paris: Idées / Gallimard.
- Joubert, Jean-Louis *et alii*(1986), *Les Littératures francophones depuis 1945*, Paris: Bordas.
- Kaputa Lota, José, 이경래 외 옮김(2012), 『아프리카인이 들려주는 아프리카 이야기』, 새물결.
- Koffi Kouacou, Jacques Raymond(2021), “Expérience de l’ailleurs et passage de l’enfance à l’âge adulte dans les contes négro-africains”, *Penser les passages dans les littératures et cultures africaines* (sous la direction d’Isaac Bazié, Jean Ouédraogo et Alain Joseph Sissao), Québec: Éditions science et bien commun.
- Laurent, Pierre-Joseph *et alii*(2020), “Ruser, tricher et tromper. Exploiter les marges avec les invisibles”, *Cargo-Revue Internationale d’Anthropologie Culturelle & Sociale*, n° 10, 7-18.
- Laurent, Pierre-Joseph(2004), “« Lieux et non-lieux de la ruse dans la société mossi »”, *Les Raisons de la ruse – une perspective anthropologique et psychanalytique* (dir. S. Latouche et M. Singleton), Paris: la Découverte.
- Le Quellec Cottier, Christine(2008), “« Le romanesque africain sous le signe de la ruse : *L’Étrange destin de Wangrin* d’Hampaté Bâ et *Monnè, outrages et défis* d’Ahmadou Kourouma »”, *Études de lettres*, 1 | 2008. DOI : <https://doi.org/10.4000/edl.5934> (검색일: 2023.8.20.)
- Oumarou, C. E.(2008). “L’animal dans les contes et légendes du Niger”, *Francofonía* 17, 195-213.

Paulme, Denise(1975), “Typologie des contes africains du décepteur”,
Cahiers d'études africaines, Cahier 60, 569-600.

Senghor, Léopold Sédar(1983), “La culture africaine, La Culture africaine. Communication à l'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https://www.academie-francaise.fr/la-culture-africaine-communication-lacademie-des-sciences-morales-et-politiques> (검색일: 2024.05.29.)

Vierne, Simon(1987), *Rite, roman, initiation*, Grenoble: PUG.

- “Bloc démocratique sénégalais (BDS)”

https://fr.wikipedia.org/wiki/Bloc_d%C3%A9mocratique_s%C3%A9n%C3%A9galais (검색일: 2024.08.17.)

- “Initiation” <https://fr.wikipedia.org/wiki/Initiation> (검색일: 2024.08.03.)

- “Résister au plus fort : ruses, mensonges et masques”

<https://www.kartable.fr/ressources/francais/cours/resister-au-plus-fort-ruses-mensonges-et-masques-2/60063> (검색일: 2024.03.03.)

❖ ABSTRACT

Leuk's initiatory rebirth in
La Belle Histoire de Leuk-le-lièvre

YU, Jai Myong
Kyung Hee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itia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Leuk's rebirth, the protagonist, in the work *La Belle Histoire de Leuk-le-lièvre* by Senegalese educators Abdoulaye Sadjì and Léopold Sédar Senghor. Born from language, Leuk acquires knowledge through his journeys and undergoes intellectual development. This knowledge accumulation and intellectual evolution are depicted as initiation rituals that assimilate him into society, instilling socio-cultural values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ommunity.

Inhabiting the bush, animals as community members mentor and guide the hero Leuk, symbolically fostering his rebirth and familiarizing him with these values. The authors employ the present tense to describe this process, a rarity in classical tales. As the narrative progresses, the hero emerges as a being capable of intellectual and emotional growth.

As an outsider to society and unfamiliar with world mechanics, Leuk expands his knowledge by exploring beyond the bush. He applies this knowledge to surmount challenges and realizes its importance for community welfare, not solely his own. This epiphany marks Leuk's mental maturation and 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La Belle Histoire de Leuk-le-lièvre* illustrates Leuk's development, revealing the intentions of Abdoulaye Sadjì and Léopold Sédar Senghor.

Abdoulaye Sadjı and Léopold Sédar Senghor authored *La Belle Histoire de Leuk-le-lièvre* to serve as a textbook in African elementary schools. The educational objectives include imparting wisdom and knowledge that embody African culture, promoting Négritude, and teaching French to African schoolchildren through literature crafted by Africans.

Keywords: *La Belle histoire de Leuk-le-Lièvre*, travel, initiation, rebirth, Sadjı Abdoulaye, Senghor Léopold Sédar

■ 논문투고일 : 2024. 09. 09

■ 심사완료일 : 2024. 09. 30

■ 게재확정일 : 2024. 10. 11

